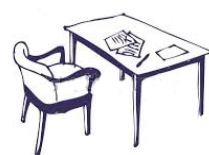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하루 두시간씩은 걸어요”

활기넘치는 95세 켈거리 조정규여사

편집자 주: 오늘은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김정열 씨가 켈거리 한인 노인회원 조정규 여사를 면담한 후 손수 정리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 합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걷는 모습만 봐도 단단함과 건강함이 느껴진다. 목소리도 카랑 카랑하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여기 맥두걸 공원에 핀 붉은 꽃처럼 밝다.

켈거리 동물원에서 멀지 않은 실베라(Silvera) 양로원 뒷뜰에서 만난 조정규여사.

1935년생이니까 올해 95세. 백세시대라는 것을 절감한다.



조용순 전 대법원장이 큰 아버지,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교육부장관이 사촌동생

성명이 반듯합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간난이' '복순이' 등으로 아무렇게나 지어졌던 시기에 태어났을 텐데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 쌍토 '규(圭)는 고대에 제왕, 제후가 예절과 예식을 거행할 때 손에 집어 들었던 일종의 옥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밭(대전)에서 태어났고 임천 조씨입니다. 장녀라서 그랬는지 항렬인 '규'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어. 큰 아버지가 법무부장관과 제2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용순씨입니다. 또 큰집 사촌동생 조완규가 서울대총장 교육부장을 지냈으니 대전에선 큰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청빈한 큰아버지는 주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세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 접시를 걸렀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불평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행복이 따른다”고도 강조하셨고요.

일제시대였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18살만 되어도 ‘

늦었다며 부모들이 큰일이라도 난듯 결혼을 채근하던 때였습니다. 대전여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결혼해야 된다고 학교를 그만두라 해서 방문에 못을 치고 죽는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갔는데 그바람에 아버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지요.

결혼은 서른 넘어 했습니다. 집안 언니 소개로 선을 보았는데 세상, 두살만 애가 둘 딸린 흠아비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찜뭇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 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사람이 아이들 때문인지 선보는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혼은 싫는데 이상하게 애들은 키우고 싶었어요. 나는 애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 아이들을 내가 낳은 애들처럼 키웠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도 식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했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남편 반대에도 애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결혼전에 내가 모았던 돈도 썼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잘 따라주어 큰 아이들은 하바드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6.25사변 때 고생하지 않

았나요?

“서울에서 대전 집으로 급히 내려왔는데 가족들은 남으로 피난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남기로 했습니다. 겁도 없었지요. 우리집이 크고 양식들이 많이 남아있어 인민군들이 집을 점거했습니다. 곡간을 열어 주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고요.

큰 집이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그곳도 인민군들이 점거해 있었고 쌀가마니가 가득 있었습니다. 청빈한 큰아버지는 두가마 이상 집에 들인 적이 없어 의아해 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큰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땠던 전란 중에도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른 넘어 결혼하고 40세에 첫 애 낳았는데 이듬해 사별

-여사님이 낳은 자식도 있나요?

“나이 40세 애가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모두 경사라며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돌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먼저 가 버렸습니다. 한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그애가 국민학교 때 캐나다로 이

민했습니다.

막내가 자동차사업 관계로 10년전 켈거리로 와서 따라왔는데 다시 BC주 빅토리아로 옮겨가버렸습니다. 함께 가지고 하는데 그냥 켈거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번씩 가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큰 딸은 영국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한번씩 갔다왔다 했습니다. 어제도 영국 딸과 통화했습니다.

켈거리가 겨울이 춥고 긴데 그래도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 있는 노인 아파트는 식사도 하루 두번 제공하고 하루 네번씩 건강체크와 청소 등을 해주어 깨끗합니다. 노인복지는 켈거리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겁니다.마내와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통화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은 어떻게?

“큰 딸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캐나다로 이민왔습니다. 딸을 보러 한번 토론토로 다니러 왔는데 이후 큰딸이 계속 함께 살자고 졸라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꺼렸는데 결국 1975년에 이민왔습니다.

토론토에 한국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시도 크고 아

름답고 사람들도 좋고 나는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데로 좋은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시니어 커뮤니티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전에는 다운타운 피스 브릿지(Peace Bridge) 인근 노인아파트에서 밥해 먹고 보우강변을 많이 걸었는데 어느 겨울 깜박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라이드를 주었습니다. 이후 복지관계자들이 의논해 저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하다며 식사가 제공되는 이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소일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바쁘니다. 아침 저녁 두 차례 한시간 이상 걸습니다. 또 하루 두 번 식사시간이 있습니다. 애들과 매일 통화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엔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곤합니다.

켈거리노인회 모임에도 어쩌다 참가하는데 라이드를 받아야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으니갈 수도 없고요.

한국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한번씩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켈거리 한인 가운데 초고령이 아닐까도 생각되는데요. 참 건강하십니다. 많이 걸으시면서도 어떤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엔 걸으면서 체조도 하고 무릎을 들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걷습니다. 언덕쪽으로도 돌아가 돌아오고요. 지난 한달은 공원의 꽃들이 만발해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물결치는대로 살아왔지만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 95세의 노인장을 과시하는 조정규 여사)

캐나다 동포 제작 영화, '캐네디언 영화제' 감독상 등 3관왕



글로리아 김 장편 '고요한 아침의 여왕'...한인으로 첫 감독상 수상

캐나다 동포 1.5세 글로리아 김(한국명 김의영) 감독이 만든 장편 영화 '고요한 아침

의 여왕'(Queen of the Morning Calm)이 '캐네디언 영화제(CFF) 2020'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12일 영화 페이스북(www.facebook.com/QueenoftheMorningCalm)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고한나 토론토 통신원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과 함께 특별 심사위원상, 릴 캐네디언 인디 어워드(Reel Canadian Indie Award)를 받아 3관왕을 차지했다.

김 감독은 수상 직후 페이스북에서 “믿을 수가 없다. 3관왕. 우리는 진심으로 이 인정에 감사한다”며 “첫 장편 영화를 응원하는 모든 출연자,



제작진, 파트너, 가족과 친구들과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성 텔레비전 채널인 '슈퍼채널'과 제휴해 열린 이 영화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5월 21일부터 3주 연속으로 36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김 감독의 영화는 29일 오후 공개됐다. 이 영화제에서 한인 감독의 장편 영화가 초창대 감독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고요한 아침의 여왕'은 29살 주인공 '데보라'가 원치 않던 10살의 딸 '모나'를 기르며 토론토 스트립 바에서 매춘부로 일하며 살아가는 내용을 그렸다. 한국에서 이민한 주

인공과 딸은 학대와 가난, 트라우마로 뒤엉킨 삶을 개선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

영화는 가난과 고통 속에 처한 아asian 여성이 마주해야 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면밀하게 살피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이 '성장'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경험하게 만든다.

영화는 김 감독이 10여 년 전 스토리라인과 캐릭터를 구상했던 작품이라고 한다.

데보라를 연기한 배우 티나 정은 현재의 인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 출연한 한

인 2세대.

이 영화를 현지시간으로 18~19일 오후 7시 오크빌 페스티벌 오브 필름&아트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토론토대 영문학과와 라이어슨대 영화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외삼촌은 고인이 된 정영일 영화평론가다.

그는 현재 '성찬'(The Banquet)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북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주제로 한 TV 스릴러 시리즈 'GONE'을 만들고 있다.